



# 조선로동당원들은 총진군의 선봉에서 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며 당원들과 당원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계기로 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확대회의의 확대회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분수령으로 되는 당 제7차대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괄하시켜 영예로운 승리가 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를 받아안은 우리 당원들의 심정에 용이마냥 일그러지고있다.

당의 뿌리가 역세에 내리쳐 지난 세기 20년대 기술에서부터 혁명의 년대들에 자기 당의 창건자, 영도자임을 일면단신 우러르며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총진군 선봉을 제정화한 우리 조국의 훌륭한 아들딸들인 조선로동당원들.

조선로동당원, 이 값없는 영예를 받고 중대한 전구들마다에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입선에 섰으며 무장과 전진의 앞장서서 돌파구를 열어나간 우리 당원들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 총진군의 선봉에서 힘차게 달려가고있다.

우리의 당원들은 장엄한 역사를 감동깊이 체험하고있다.

우리의 당과 군대를 천두월비 수명의 당, 수명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며 원단군이 영도자와 사상과 뜻도 같이하고 혁명과 전진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명년들의 유혹을 철저히 반렬하여 이 땅, 이 하늘이배 사회주의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장엄하고도 보람찬 투쟁.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인민대중적 영웅의 빛을 높이 들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대한 우리 당을 받드는 전위투사자 되고 성명히 되리라.

조선로동당원들의 이런 비상한 신념이 총진군대로의 승리로 높여주고 있다.

혁명의 첫 전위들, 우리 당의 첫 당원들도 오직 자기 영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을 뼈속깊이 간직하고 머나먼 혁사의 초행길을 나서지 않았던가.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사상과 신념의 지인이 되어 총진군의 앞장서야 할 책임적이고 중대한 시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세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력기여하여 새기부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분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원, 이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위투사자로서 오직 이념 그치며 고귀하고 값없는것이다.

당원들의 삶은 수명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신념과 깨끗한 양심으로 당과 수명을 받든 위대한 우리 당의 1세대 당원들이었던 차광수, 김혁, 최정철...

항일투쟁이 낳은 첫 당원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투사들로 그 이름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첫 당원들인 건설동지들의 열렬 투사들은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따라 배워야 할 귀감이요 모범이요이다.

우리의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인 열렬 충성들의 빛나는 생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로동당원의 정교와 자질을 그 어떤 특수한 출신이나 남다른 경력에 의지 않고 오직 당과 수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있다는것을 다시금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첫 세대 당원들의 넉과 전통을 이어 위대한 수명년들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전진의 영웅한 시련도, 전후의 난관도 역활없이 이겨내고 이 땅에서 천리비대천군의 열풍을 일으킨 혁명의 10명 당원들과 강건의 로동당원들이 발휘하였던 불굴의 정신과 투쟁기풍은 오늘 우리 당원들의 심장에 생명의 불을 활활

켜켜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넘 불타고 당중앙 따르시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영광년전 길을 걸어오 존엄한 걸음도 해도 당을 따르는 한결에서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며 그 길에서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어려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우리 당원들의 의지이며 신념이다.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든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며 당의 기풍을 충성으로 받드는 김이 본 휘장처럼한 승리를 안아오고 민족단대연명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고 당에 대한 일관단신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당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차광수, 김혁으로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

우리의 당을 영원한 수명년들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려는것은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세기를 이어온 만민전선대결전을 총력산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의 영도자와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수명년과 장군님의 참다운 전사, 제자가 되는것, 바로 이 길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정한 동지, 전우의 고귀한 삶을 빛내이는 길이다. 모든 당원들이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자신을 더욱 돈독히 준비하며 하나가 열매의 대중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선로동당원의 정교, 이는 인민을 위한 봉사부름이다.

인민을 위한 봉사부름은 조선로동당원들이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실현하여야 할 정신이고 기풍이어야 한다.

혁명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심,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서 한평생 투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명년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대영원히 인민대중적일주의의 성스러운 혁명의 정신과 투쟁기풍은 오늘 우리 당원들의 심장에 생명의 불을 활활

사하는것을 맡기워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은 법의법 수단과 방법으로 최후 승리로 향할 우리의 궤도에 차 단발을 내리우려고 달려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며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안겨줄 승리의 황제판은 오직 자강력으로만 마련할수 있다. 혁명가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는것을 자각하고 모든 부흥, 모든 단위에서 자강적일주의의 높이를 높고 나가야 하며 그 앞장에 조선로동당원들이 서야 한다.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이름에 지치지 않는다.

혁명열이 높은 당원 한사람은 백천을 대신한다. 혁명열은 조용한 사색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투쟁의 불길속에서, 간고한 시련의 마당에서, 혁명입구에 대한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성실하게 일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당원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불사신이 되어 위대한 수명년들의 유혹 반렬전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쟁취에 뛰어들어야 한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질풍같이 내달리며 인민군대처럼 온몸이 혁명열로 이글거려야 기적을 창조할수 있으며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며 승리의 황제판을 마련할수 있다.

지나면 파선전역에서 기적을 안아온 인민군대원들의 투쟁모습을 잊을수 없다. 그때 한 병사가 머신 심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들의 뇌리를 친다.

《당에서 정해진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다. 불굴의 집적투쟁처럼 한몸이 그대도 육안이 되어 선봉마음을 꾸러 우리 당을 옹위하고 우리 당의 위대성을 세상에 펼쳐라.》

우리의 당의 품속에서 지나온 세 세대 당원들의 사상정신과 불타는 투지를 얼마나 강동들이 읽을수 있게 하는가.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노도의 기상으로 일매신 조선로동당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굳건한 군인, 군인 불굴, 군인기풍이 도도히 백막쳐야 한다. 오늘 우리 당원들이 지켜온 투쟁의 이념과 후방이 따로 없던 한 평의 소양관과 다름없다. 우리가 잘

## 혁명무력건설사에 빛나는 자욱

오늘도 온 나라 천만인민은 정구무력건설사에 빛나는 혁명무력건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그날 수를 주체 37(1994)년 2월 8일 조선혁명의무력으로 지난날 정구인민군의 탄생은 세상에 알린 성대한 열병식을 잊을수 없다. 혁명의 군복을 펼쳐 입고 조국수호의 용장을 익세켜 붙여주는 열병대오의 자랑찬 모습에 생생히 일어난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명년께서 무력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수명년들의 혁명업적이라는 데서도 가장 귀중한 업적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인민군대(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군정치를 높이기에서 튼튼한 토대로, 고귀한 빛으로 되였을것이다.》

군복은 예로부터 군대의 면모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되어왔다. 그 어느나라 자기 군대의 군복을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해방후 정구무력을 건설하던 나날에 위대한 수명년께서는 우리 군대의 군복을 만드는데는 우리의 중요한 사상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영도해주시였다.

주체 35(1946)년 9월 이날 몇몇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수명년께서는 말리 우리 군대의 군복을 제정해야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피어오르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위대한 수명년에게 통일적인 군복을 해입

## 인민군대의 첫 군복이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군복을 만든 경위에 기초하여 민족적특성을 살려준 군사적요구와 현대미감에 맞게 군복형식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우리 군복은 조동자, 농민의 리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군복은 인민적특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

우리 군대 군복의 형식을 규정하는데서 근본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강령적인 지침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명년께서 군복을 위용있게 만들려면 군복에 장식을 첨가하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군대는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군대에 군복에 인민의 군대라는것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복비교의 팔색대에 인민의 군대라는 뜻에서 붉은 줄로 사람 인자성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가르치시였다. ...

조선인민군의 첫 군복에는 위대한 수명년께서 정구무력건설사에 빛나는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

## 전진의 선봉이었던 수명년과 마정인대 열정적 투쟁

전진의 승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이제 대한사람들의 견해는 여러가지이다. 군사력, 인민들의 용감함과 위훈, 전위기술자의 열정... 일리있는 말이다. 하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여러차례 인민군대에 대한 애비수명년들의 하늘같은 사랑을 떠나서는 절대로 논할수 없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명년들이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불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애비이시니...》

가령만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위대한 수명년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 중요회의의 일이다.

위대한 수명년께서는 한 지휘관에게 요충 회의를 끝낸 다음 매일 어디에 갔다오는지 물었다.

그가 말씀드리기 지어하며 바가지 위대한 수명년께서는 무슨 사정이 있

## 박봉주 총리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과 해산-삼지연은철길건설장 현지료해

【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과 해산-삼지연은철길건설장 현지료해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권위적호소로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은 -30℃의 혹한속에서도 밤을 이어 공사성파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총리는 건설장들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당 제7차대회를 열망의 대위로 맞이하기 위한

## 선군혁명경도의 노래를 하나 불러도

어느날이었다. 그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일망 거머쥔 열렬한 뜻을 안시고 밤을 꼬박 밝히고계시였다.

이때 목욕기에서는 노래 《장군님 가시는 천리전진길》이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잠시 하신 일을 멈추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머리도 숙일것 노래공부를 하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피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화면만주음악기대로 노래를 조종하도록 하시고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를것은가고 최종에 맡음하시였다. 한 일군이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이어 일군들은 차례로 노래를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 좋은 노래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들으려면 눈비도 가리지 않고서 우리 병사들을 찾아 높은 산, 험한 명을 넘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진길이 그대로 어떠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감동깊이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

## 선군혁명경도의 노래를 하나 불러도

보시며 우리는 노래를 하나 불러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의미있는 말씀을 하시였다.

노래를 하나 불러도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함으로써 귀중한 가르치심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다시금 절절히 불렀다. 그들의 노래소리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존경의 정을 담고서 밤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노래만주기능을 갖춘 목회기를 많이 리용하고있는 부대지휘관의 보고를 기쁨속에서

## 선군혁명경도의 노래를 하나 불러도

좋다고 웃음속에 이르지였다. 실로 유다는 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당에서는 모든 지휘관들이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만능인군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휘관들은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구호만 체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일수록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송도 추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이르지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후회없었다. 부대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리시대로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만능인군이 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선군혁명경도의 노래를 하나 불러도

우리는 또한 백두산열대위인들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있을것을 기대하고 있다. ...



박봉주총리 해산-삼지연은철길건설장 현지료해







